

제주관광 관련 연구동향에 관한 내용분석 :
국내 관광분야 KCI 등재지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Trend of Jeju Tourism :
Focused on the KCI Journals in Tourism Area

오미자* · 고미영** · 오상훈***

Oh, Mi-Ja · Ko, Mi-Young · Oh, Sang-Hoo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of Jeju tourism and suggest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a total of 212 journal article published from 1989 to 2015 focused on the selected 7 tourism journals. For review of the research articles, 7 analysis categories such as publication year,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and the means of data collection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volume of the Jeju tourism study has increased since 2006 and there was the increase in research subject which was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and tourist behaviour and psychology. In the research methods, most of researches related to Jeju tourism were limited to quantitative metho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dditional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are enclosed.

Keywords : Content analysis, Research trend, Jeju tourism

국문요지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관광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주관광 및 내용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했고, 분석 대상으로 국내 관광분야 7개 등재학술지에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211편의 논문을 선정했다. 제주관광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게재년도, 연구주제, 연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강사, e-mail: singsing8466@naver.com

** 제주발전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 e-mail: kossi32@jdi.re.kr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shoh323@jejunu.ac.kr

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등 7개의 분석유목을 활용했다.

분석결과, 제주관광 관련 연구는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관광행동심리,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방법에서는 양적 접근과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 질적 접근과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국인 관광객과 지역주민 외에 외래관광객, 관광사업체, 관광종사원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관광 관련 향후 연구주제 및 연구방향,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열쇠말 : 내용분석, 연구동향, 제주관광

I. 서론

제주관광은 1960년대 교통 및 숙박 등 관광기반 시설 설립을 시작으로 태동되었고, 1970년대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관광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관광객 수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제주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80년대에는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지, 효도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1983년 관광객 수 100만 명 돌파를 시작으로 1991년에는 관광객 300만 명, 1996년에는 관광객 4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 및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제주관광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었으며, 저가항공 증가로 인한 접근성 향상, 올레코스 개장 등으로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제주 입도 관광객 수는 2005년 내국인 464만 명, 외국인 38만 명에서 2013년에는 내국인 852만 명, 외국인 233만 명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내국인 1,104만 명, 외국인 26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제주관광공사, 2015).

이렇듯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꾸준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제주관광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관광 관련 연구 성과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방문 관광객의 증가,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 등 최근 제주관광이 급격하게 성장·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제주관광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 관광학 분야에서 제주관광에 관한 연구는 1959년 이후부터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에 제주관광 관련 연구논문들이 게재되었다. 2006년부터 제주관광 관련 연구들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행동·심리, 관광정보, 관광경영, MICE, 호텔·외식분야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제주관광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는 올레관광객, 쇼핑관광객, 다크투어리즘, 기후변화 등 제주관광 트렌드와 이슈를 반영한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관광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에 진행된 제주관광 관련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장성수, 1987)가 있으나 발표된 시기가 오래되어 그간 진행되어 온 연구 자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다른 연구(장성수·김종기, 2012)의 경우 분석논문 범위가 제주지역 내에서 발간된 지역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국내 관광분야 학술지에서 발간된 제주관광 관련 다수의 연구들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분석유목이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발표 시기에 한정되어 있어 제주관광 관련 연구동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유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광분야의 주요한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제주관광과 관련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논문의 게재년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및 대상 등 연구동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관광 관련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주제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향후 제주관광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제주관광 관련 선행연구 동향

제주관광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주관광 관련 주요 정책과 이슈와 함께 살펴보면, 1960년대 제주 관광정책은 교통 및 숙박시설 설립, 제주관광협회 설립, 관광안내원 제도 실시 등 관광기반 시설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제주관광에 관한 연구는 제주관광이 싹트기 시작한 1959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연구보고서, 간행물, 발표자료 등을 통해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장성수, 1987).

1980년대 후반 제주 관광정책은 1985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1998년 중국인관광객 무사증입국 허용 등이 주요한 이슈였다(장성수·김종기 2012). 이러한 정책변화와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관광개발(임주환, 1989), 관광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주민인지(이완형, 1989), 관광토산품 개발(김범국·고재건·김형길, 1989) 등 제주관광에 관한 연구가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서서히 시작되었다.

2000년에 이후부터 제주관광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관광개발(조광익·김남조, 2002), 관광경제(양승필·신기철, 2001), 관광수명주기 추정과 발달단계 분석(박재모·여정태,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김대경, 2002; 홍성화, 2003), 제주도 장수지역 이미지 관광자원화 방안(양창식, 2004) 등 주로 제주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제주도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2000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공포(2004년),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2005년) 등 제주에서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해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대학교 내 관광경영학과(2001년)와 관광개발학과(2004년)에 박사과정이 신설되면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후부터 제주관광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관광자원개발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관광객 행동·심리(변수너·최병길, 2007; 최병길·김경호, 2007; 배준호·신흥철, 2008; 양성수·박시사·조성진, 2009), 관광경영(강성일·오상훈·양필수, 2007; 강성일·오상훈·정병웅, 2007), 관광정보(허향진·박시사·양성수, 2006; 지봉구, 2009), MICE(임하정·홍성화, 2007; 임하정·홍성화, 2008; 이소윤·홍성화; 고미영·박시사·양성수, 2010), 호텔·외식 분야(구필모·허향진·서용건·이성은, 2007; 강숙영, 2008; 양성수·정철·육운·조문수, 2009), 관광쇼핑(서용건·고광희, 2006; 오상훈·고미영·강성일·양필수, 2008), 관광위기(오상훈·양필수, 2008), 크루즈(박승영·정승훈·양성수, 2010), 골프관광(오상훈·양필수·김정희, 2008) 등 기존에 관광개발, 관광경영, 관광행동 및 심리에 제한되었던 연구주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제주관광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한 주요한 관광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제주방문의 해 선정(2006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제주 올레코스 개장(2007년),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MICE산업 지정(2009년)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 이후에도 제주관광 관련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레관광객(김인신·조민호, 2011; 강성일·이계희, 2011; 신진옥·정철, 2014; 한학진, 이홍규, 2014), 다크투어리즘(장혜원·최병길·송재호, 2012; 장혜원·김태훈·정철, 2011; 장혜원, 2012), 면세점 쇼핑관광객(고미영·양필수·고계성, 2011), 관광개발에 관한 갈등과 주민협력(양승필·서용건, 2015), 기후변화(이영진·송영민·윤지환, 2011; 이민재·황윤섭·서원석, 2014; 이민재·황윤섭·서원석, 2015) 등 제주관광의 트렌드와 관심사를 반영한 이전에 연구되지 않았던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제주관광 관련 연구동향에 관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성수(1987)는 1959년부터 1986년까지 제주관광 관련 연구보고서 및 각종 간행물, 발표자료 등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는데,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사업, 관광행정, 국제관광, 관광지리 6개의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제주관광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했다. 또한 장성수·김종기(2010)는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관광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349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새로운 분석기법인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논문유형, 발표 시기, 연구대상, 연구주제를 분석유목으로 제주지역 관광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했다. 연구결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31편,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120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연구논문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연구주제는 관광행동·심리가 128편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마케팅 68편, 관광경영·경제 46편, 관광정책·행정이 45편순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제주관광 관련 주요 정책 및 이슈

시기	주요 내용	주요 연구주제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및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 시설 설립 시작 · 제주관광협회 설립, 공인 관광안내원제도 실시 	-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 제주관광여행사 발족 · 관광객 수 50만 명 돌파 · 용연, 정방폭포, 안덕계곡, 만장굴 등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지, 효도관광지 · 무사증 입국 허용 · 1983년 관광객 수 100만명 돌파 · 1985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 표선 제주민속촌, 제주조각공원 등 관광매력물 등장 	관광개발, 환경영향, 관광경제 등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추진 · 관광객 300만 명 돌파(1991년), 1996년 관광객 400만 명 돌파 · 제주도 관광특구 지정 · 1998년 중국인관광객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용 · 1990년대 초반 신혼여행객 감소, 후반기 IMF로 관광객 급감 	관광산업, 지역경제효과,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등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공포 ·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2007년 한국 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 2009년 제주웰컴센터 준공 및 제주관광포털시스템 구축 	관광개발정책, 관광객 행동 및 심리, 관광정보, MICE, 호텔·외식, 관광쇼핑, 크루즈, 세계자연유산, 축제, 골프관광 등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입도 관광객 700만 명 돌파 ·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 브랜드 이미지 상승 · 2002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 2012년 제주올레코스(21개) 완성 - 도보여행 유행 · MICE, 웨딩, 의료, 골프, 크루즈관광 등 관광패턴 및 상품의 다양화 · 2012년 입도 관광객 800만 명, 2013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 2011년 제주관광 비전 2020 수립 · 2016년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수립 	올레관광, 한류관광, 공연관광, 다크투어리즘, 갈등과 주민협력, 기후변화 등

자료: 제주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13) 등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 제작성

2. 관광분야 내용분석 선행연구 고찰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나타난 내용을 객관적·체계적이면서 계량적으로 기술한 관측 연구방법을 말한다(이근희, 2007). 이러한 내용분석은 신문기사 등 방대한 자료들의 패턴이나 특성을 기술하거나 측정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활용된다. 초기의 내용분석 대상은 신문기사, 연구논문, 사진자료, 고문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광고 메시지, 노래, 웹사이트, 온라인 관광도메인 등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강영애, 2015). 내용분석은 복잡하고 방대한 양적 자료들을 수치화 해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오익근, 2000).

관광분야 내용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관광분야에서 내용분석 연구는 크게 관광학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검토하는 연구와 특정 분야 혹은 주제와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강영애, 2015) 관광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내용분석 관련 연구논문(안중윤, 1995; 조민호, 1997; 김사현, 1999; 한범수·김사현, 2001;)들은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며, 국내 최초 관광학 분야 학술단체에서 발행한 관광학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주로 분석한 경우가 많다. 이는 관광분야 연구 초반에는 게재학술지가 다양하지 못했고, 게재된 논문 편수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부터 관광분야 내용분석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광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이 아닌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논문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축제·이벤트(부소영, 2003; 홍성화·최병길·이성은, 2006), 호텔정보시스템(박희석, 2004), 여가(상려아, 2007; 이진형·심재명, 2009; 오상훈·고미영, 2009), 관광이미지(서원석·백주아, 2009), 관광목적지(송재호·김향자, 2010), 지역관광(김진동·허중욱, 2011), 방한 중국인 관광객(허진·고미영, 2012), 지리정보시스템(김진원·윤병국, 2013), 메가이벤트(박효연·이혜련·김대관·송수엽, 2014), 장소애착(강영애, 2015), 마케팅(박희준·정유경, 2015) 등 관광분야 연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편, 연구주제의 다양화와 더불어 내용분석 연구는 연구대상과 방법에서도 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용분석 연구 초반에 연구대상이 대개 국내 특정 학술지에 국한되었던 반면에,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해외학술지(부소영, 2003; 김진원·윤병국, 2013) 뿐만 아니라 가이드북(강숙영·박시사·홍영임, 2007), 교과과정(차진아, 2012), 신문사설(서정호·김철원, 2012), 신문기사(서원석·이보배, 2012), 관광웹사이트(최기탁, 2012)등 연

구대상 범위가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었다.

연구주제가 다양화됨에 따라 질적 논문의 비율(김사현, 2007), 비교문화(허진·고미영, 2012), 연구대상지(강영애, 2015) 등 분석유목이 새롭게 추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내용분석 연구들은 언어네트워크 분석(박효연·이혜련·김대관·송수엽, 2014), 대응분석(서정호·김철원, 2012), 텍스트 마이닝(서정호·김철원, 2012)방식을 적용하는 등 기존 내용분석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주제와 방법론적 면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 관광분야 내용분석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년도)	연구주제	주요 특징
안종윤(1995), 조민호(1997), 김사현(1999), 김사현(2007), 한범수·김사현(2001)	관광 전반	관광학 분야 연구동향 검토
부소영(2003)	축제·이벤트	해외학술지 분석
홍성화·최병길·이성은(2006)	축제·이벤트	국내학술지 분석
박희석(2004), 김진원·윤병국(2013)	호텔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
임은미(2004)	리조트	-
서원석·이보배(2012)	카지노	신문기사 분석
강숙영·박시사·홍영임(2007)	제주관광 이미지	가이드북 분석
상려아(2007), 이진형·심재명(2009), 오상훈·고미영(2009)	여가	-
서원석·백주아(2009)	관광이미지	-
송재호·김향자(2010)	관광목적지	-
김진동·허중욱(2011)	지역관광	-
허진·고미영(2012)	방한 중국인 관광객	비교문화(분석유목) 적용
차진아(2012)	조리학과 교과과정	교과과정 분석
서정호·김철원(2012)	국내관광 의사결정과 소셜미디어의 관계성	신문사설 분석, 대응분석, 텍스트마이닝 방식 적용
박효연·이혜련·김대관·송수엽(2014)	메가이벤트	신문사설 분석 언어네트워크 분석
강영애(2015)	장소애착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 분석
박희준·정유경(2015)	마케팅	-
최기탁(2012)	관광 웹사이트	관광웹 관련 국내외 연구논문 분석

자료: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 제작성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연구논문 선정

최근까지 제주관광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정확하고 충실한 내용분석을 위해 모든 분야의 연구논문들을 수집해 분석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제주관광과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관광분야의 7개의 등재학술지로 분석대상을 한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제시된 7개의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을 수집했다. 논문 수집은 해당 학술지 인터넷 사이트와 학술지 검색사이트인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Bpia의 홈페이지를 활용했다. 분석대상 논문 수집을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제주관광’, ‘제주’ 키워드를 입력하여 논문들을 수집했으며, 분석대상에 부적절한 논문 6편을 제외한 총 211편을 최종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했다.

<표 3> 분석대상 학술지 발행기관 및 게재 논문 수

No.	발행기관	학술지명	분석대상 게재 논문 수
1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70
2	(사)한국관광레저학회	관광레저연구	45
3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25
4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연구저널	29
5	한국호텔관광학회	호텔관광연구	11
6	관광경영학회	관광경영연구	23
7	한양대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8
합 계			211

2. 분석유목 선정 및 자료 분석

제주관광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7개의 분석유목을 선정했다. 분석유목은 내용분석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효과적인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분석유목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분석유목 선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내

용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후 <표 4>와 같이 7개의 분석유목을 선정했다.

분석유목 중 연구주제는 김기용·김현일(2004), 김현일·김기용·유미진(2004), 한국연구재단의 분류체계 및 연구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총 19개의 연구주제로 분류했다. 연구방법은 이근희(2007), 김사현(1999), 최규환(2003)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집된 자료의 형태에 따라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2가지로 구분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대해 조사하여 주관적인 느낌을 글로 기술, 묘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 양적 연구는 어떤 현상을 측정하여 나타난 수치화 된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적 추측과정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질적 연구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활용한 경우는 양적 연구로 분류했다.

자료수집 방법은 5개의 하위 분석단위(설문조사, 2차 자료, 면접조사, 사례연구, 기타)로 분류했으며, 김사현(2000), 최규환(2003) 등의 연구를 참고했다. 조사대상은 이진형·심재명(2009)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역주민, 내국인 관광객 등 9개로 분류했다.

<표 4> 연구의 분석유목

분석유목	하위 분석단위	선행연구
계재년도	1989년~2015년	김사현(1999), 최규환(2003), 홍성화 외(2006), 서원석 외(2009)
연구주제	관광정책행정, 관광자원개발, 관광행동심리, 관광경제, 관광경영, 관광마케팅, MICE, 여행사항공사, 호텔외식산업, 카지노, 관광정보, 관광쇼핑, 도보관광, 크루즈, 골프관광, 다크투어리즘, 관광날씨, 관광&안전, 기타 관광학	김기용·김현일(2004) 김현일·김기용·유미진(2004) 한국연구재단 분류체계(2016) 본 연구(2017)
연구방법	양적 접근, 질적 접근	김사현(1999), 한범수·김사현(2001), 조용환(2002), 최규환(2003)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 2차 자료, 면접조사, 사례연구, 기타	김사현(2000), 최규환(2003), 홍성화 외(2006), 정유경 외(2007), 허진·고미영(2012)
조사대상	지역주민, 내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서구권 관광객, 관광사업체, 전문가, 관광종사원, 기타	이진형·심재명(2009), 김현일·김기용·유미진(2004) 오상훈·고미영(2009)
논문 저자 수	1명~4명	김형철(2002)
저자의 소속지역	도내, 도외, 도내 및 도외	조민호(1997)

자료: 선행연구 검토 후 연구자 제작성

분석자료의 코딩은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했고,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2명이 각각 코딩을 한 후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검증했다. 일반적으로 코더 간 신뢰도 계수는 최소한 0.8에서 0.9 사이가 되어야 한다(대니얼 라이프 외, 2001). 본 연구의 분석유목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 계수¹⁾는 게재년도, 자료수집 방법, 조사대상, 논문저자 수, 저자의 소속지역의 경우 신뢰도 계수가 1.000으로 100% 일치하였다. 반면에 연구주제는 신뢰도가 0.8341, 연구방법은 0.9573으로 검증돼 최소한의 수준인 0.8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코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을 사용했으며,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했다.

IV. 분석결과

1. 논문 게재현황

국내 관광분야 7개 등재 학술지 중 제주관광과 관련된 연구논문들의 게재시기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1989년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13편(6.2%)에 불과하다. 2001년부터 서서히 게재논문 수가 증가하여 2005년까지 총 38편의 연구논문이 발행되었고, 이는 전체 중 15.6%를 차지한다.

2006년 이후 게재논문 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총 21편(10.0%), 2011년에는 총 26편(12.3%)이 게재되는 등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16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는 전체 발표논문에서 72%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제주관광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와 관광개발학과에 석·박사과정²⁾이 신설되어 제주관광 관련 게재논문 편 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주 : 코더 간 신뢰도 계수 : $2M / (N1 + N2)$, M은 코더 간 일치한 코딩 건수를 의미하며, N1과 N2는 코더 1과 2의 코딩 건수를 의미함.

<표 5> 연구논문 게재년도

게재년도	빈도	퍼센트	게재년도	빈도	퍼센트
1989	3	1.4	2005	8	3.8
1991	1	0.5	2006	12	5.7
1993	1	0.5	2007	17	8.1
1995	1	0.5	2008	21	10.0
1997	2	0.9	2009	16	7.6
1999	2	0.9	2010	17	8.1
2000	3	1.4	2011	26	12.3
2001	6	2.8	2012	16	7.6
2002	2	0.9	2013	10	4.7
2003	9	4.3	2014	17	8.1
2004	8	3.8	2015	13	6.2
합계	211				100.0

2. 게재시기에 따른 연구주제

아래 <표 6>에 게재시기에 따른 제주관광 관련 연구논문들의 연구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제주관광 관련 연구주제들을 살펴보면, 관광자원개발 관련 연구논문이 총 40편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전체 중 19.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관광행동·심리(30편-14.2%), MICE(16편-7.6%), 관광마케팅(14편-6.6%) 및 호텔외식산업(14편-6.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재시기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1989년부터 2000년에 게재된 총 13편의 논문들 중 관광자원개발 관련 논문이 총 3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광경영 관련 논문이 2편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제주관광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1985년) 및 추진(1994년),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2000년) 등 제주관광 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주지역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논문들의 경우도 관광자원·개발 관련 논문이 총 10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광행동심리, 관광경제, 관광경영 관련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이전에 연구되지 않았던 관광정책·행정과 관광정보, 골프관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표 6> 연구주제

연구주제	총 편수(%)	1989-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관광정책행정	7(3.3)	0	2	1	4
관광자원개발	40(19.0)	3	10	13	14
관광행동심리	30(14.2)	1	3	13	13
관광경제	11(5.2)	1	3	0	7
관광경영	10(4.7)	2	3	5	0
관광마케팅	14(6.6)	1	1	9	3
MICE	16(7.6)	1	1	12	2
여행사항공사	8(3.8)	1	1	3	3
호텔외식산업	14(6.6)	1	0	7	6
카지노	7(3.3)	1	1	2	3
관광정보	9(4.3)	0	4	3	2
관광쇼핑	8(3.8)	1	1	4	2
도보관광	9(4.3)	0	0	1	8
크루즈	3(1.4)	0	0	2	1
골프관광	3(1.4)	0	1	1	1
다크투어리즘	7(3.3)	0	0	1	6
관광날씨	4(1.9)	0	0	1	3
관광&안전	4(1.9)	0	0	3	1
기타 관광학	7(3.3)	0	2	2	3
합계	211(100)	13	33	83	82

2006년부터 2010년에는 관광자원·개발 관련 연구논문 13편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고, 관광행동·심리(13편), MICE(12편), 관광마케팅(9편), 호텔외식산업(7편)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증가했다. 또한, 관광쇼핑, 도보관광, 카지노, 크루즈, 관광날씨, 관광&안전 등 새로운 주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예전에 비해 연구주제의 다양화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2007년), 세계지질공원 등재(2010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2011), 제주 올레 21코스 완성(2012년) 등 제주관광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더불어 2013년 입도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여는 등 이 시기에는 제주관광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었고, 제주관광이 급성장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제주관광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관광 관련 연구주제 동향을 살펴보면, 관광행동·심리관련 연구(13편)와 관광자원·개발 관련 연구(14편), 호텔외식산업(6편)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었다. 한편 관광경영과 관광마케팅 관련 연구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 반면에 관광경제, 도보관광, 다크투어리즘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했다.

3.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제주관광 관련 연구논문들의 게재시기별 연구방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연구방법은 양적 접근(176편-83.4%)이 질적 접근(35편-16.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분야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제주관광 관련 연구도 주로 양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질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게재시기별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1989년~2000년에는 양적 접근(7편)이 질적 접근(6편)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2005년에는 양적 접근의 연구논문들이 23편으로 증가했으며, 2006년~2010년에는 79편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질적 접근은 2001년~2005년에 10편으로 다소 증가했고, 2006년~2010년에는 4편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이후 15편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표 7> 게재시기별 연구방법

구분	합계	1989-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양적 접근	176(83.4%)	7	23	79	67
질적 접근	35(16.6%)	6	10	4	15
전체	211(100%)	13	33	83	82

다음 <표 8>에 연구논문의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비율이 77.3%(163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경우

가 38%(18.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료수집 방법으로 면접조사(7편-3.3%), 사례연구(2편-0.5%)는 설문조사에 비해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 연구논문 자료수집이 설문조사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에 따른 자료수집 방법을 살펴보면, 관광자원개발(40편), 관광행동·심리(30편), MICE(16편) 순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자료의 경우 관광경제(11편)와 관광자원·개발(10편) 관련 연구들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의 경우 도보관광(3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제주관광 관련 논문들은 양적 접근에 집중되어 있어 자료수집 방법도 설문조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에 적합한 다양한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연구주제별 자료수집 방법

연구주제	총 편수(%)	설문조사	2차 자료	면접조사	사례연구	기타
관광정책행정	7(3.3)	3	2	1	1	0
관광자원개발	40(19.0)	29	10	1	0	0
관광행동심리	30(14.2)	28	1	0	0	1
관광경제	11(5.2)	0	11	0	0	0
관광경영	10(4.7)	9	1	0	0	0
관광마케팅	14(6.6)	11	3	0	0	0
MICE	16(7.6)	16	0	0	0	0
여행사항공사	8(3.8)	7	1	0	0	0
호텔외식산업	14(6.6)	13	1	0	0	0
카지노	7(3.3)	6	1	0	0	0
관광정보	9(4.3)	9	0	0	0	0
관광쇼핑	8(3.8)	6	1	0	1	0
도보관광	9(4.3)	5	1	3	0	0
크루즈	3(1.4)	1	1	1	0	0
골프관광	3(1.4)	2	0	1	0	0
다크투어리즘	7(3.3)	6	1	0	0	0
관광날씨	4(1.9)	3	1	0	0	0
관광&안전	4(1.9)	4	0	0	0	0
기타 관광학	7(3.3)	5	2	0	0	0
합계	211(100)	163(77.3)	38(18.0)	7(3.3)	2(0.9)	1(0.5)

<표 9>에 제시된 연구논문의 조사대상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총 99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민(53편), 중국인관광객(21편), 관광종사원(16편), 관광사업체(13편), 전문가(12편)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주관광 관련 다양한 주체들에 비해 조사대상이 내국인 관광객과 지역주민에 편중되어 있어 조사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관광의 패턴이 변화하고 이슈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광객 행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주를 방문한 개별관광객, 동남아 및 영어권 관광객 등 주요 방문 외국인관광객 뿐만 아니라 음식관광객, 레저스포츠 관광객, 한류관광객, 웨딩관광객, 생태관광객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조사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조사대상

조사대상	빈도	퍼센트
지역주민	53	23.3
내국인관광객	99	43.4
일본인관광객	9	3.9
중국인관광객	21	9.2
서구권관광객	5	2.2
관광사업체	13	5.7
전문가	12	5.3
관광종사원	16	7.0
합계	228	100

주: 연구대상은 중복체크하여 계산했으며, 결측값 및 연구대상이 불분명한 논문은 제외함.

4. 논문 저자 수 및 저자의 소속지역

아래 <표 10>에 연구논문의 저자 수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타나있다. 논문 저자 수를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저자 수가 2인이 경우가 65편(38.9%)로 가장 많았고, 3인(65명-30.8%), 1인(53명-25.1%)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논문 저자 수

논문 저자 수	빈도	퍼센트
1명	53	25.1
2명	82	38.9
3명	65	30.8
4명	11	5.2
합계	211	100

연구논문 저자의 소속지역을 <표 11>에 의해 살펴보면, 저자가 제주도내 대학, 연구원, 관련 기관에 소속된 경우가 50.2%(106편), 도내 및 도외 소속 연구자가 공동저자인 경우가 12.8%(78편)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도외 소속된 연구자의 비중은 37.0%(78편)로 분석되었다.

<표 11> 저자의 소속지역

저자의 소속지역	빈도	퍼센트
도내	106	50.2
도외	78	37.0
도내 및 도외	27	12.8
합계	211	100.0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제주관광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 관광분야 7개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211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제주관광 관련 학술지 게재논문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게재년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등 7개의 분석유목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제주관광 관련 연구는 1989년 이후 서서히 시작되어 2006년 이후부터는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관광자원개발과 관광행동심리, 관광마케팅 관련 연구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장성수·김종기(201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데, 제주지역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의 연구주제도 관광행동·심리, 관광마케팅, 관광경영·경제, 관광정책·행정 관련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MICE, 관광마케팅, 호텔외식산업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 시기부터 관광쇼핑, 도보관광, 카지노, 크루즈, 관광날씨, 관광&안전 등 이전에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연구주제가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에는 다크투어리즘과 도보관광 관련 연구논문들이 증가하는 등 제주관광 연구주제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논문들의 연구방법은 양적 접근이 질적 접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료수집 방법의 경우도 설문조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의 다양화와 효과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질적 접근의 시도와 연구주제와 대상에 따른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조사대상에 있어서도 지역주민과 내국인 관광객, 중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아 도내 관광사업체, 서구권 관광객, 동남아관광객, 개별관광객, 스마트관광객 등 최근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조사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주관광의 성장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관광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관광분야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으며, 조사방법이나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다양한 연구방법과 대상에 대한 접근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제주관광에 대한 이슈가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융복합,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객 안전 및 위기관리, 개별관광객 유치, 지역발전에 대한 공헌 등 다양화됨에 따라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세분화된 주제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스마트관광, 음식관광, 의료관광, 농촌관광, 해양관광, 지질관광, 한류, 웨딩, 레포츠 등 제주관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주제를 반영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주요한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제주관광 관련 연구논문의 연구동향과 발전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방향과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관광 관련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주관광 관련 내용분석 연구들과는 달리 제주지역 외에 국내 주요 등재지를 분석대상

으로 선정해 연구대상을 확장시켰고, 연구주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선행연구의 연구동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등 다양한 분석유무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분석대상 학술지를 국내 관광분야의 주요한 7개의 등재학술지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분야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뿐만 아니라 타 학문분야에 게재된 제주관광 관련 연구들도 광범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성일·오상훈·양필수(2007). 제주지역 관광사업자의 개인특성, 기업가정신,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2(1), 487-504.
- 강성일·오상훈·정병웅(2007). 제주지역 중소관광기업가의 사업동기와 배경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31(3) 135-152.
- 강성일·이계희(2011). 제주올레관광자와 대중관광객의 특성 비교-방문동기, 환경친화적 여행 태도, 웰빙인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5(6), 23-40.
- 강숙영(2008). 호텔 CRM시스템 운용이 종사원 역량증진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제주도내 특급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관광경영연구』, 35, 1-19.
- 강숙영·박시사·홍영임(2007). 일본어 가이드북에 표현된 제주도의 이미지-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2(3), 259-279.
- 강영애(2015) 관광분야 학술지 장소애착 연구동향 분석, 『관광학연구』, 39(2), 103-118.
- 고미영·박시사·양성수(2010). 제주지역 MICE 참가자 이벤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관광레저연구』, 22(6), 159-175.
- 고미영·양필수·고계성(2011). 면세점 쇼핑 관광객의 중요도-만족도(IPA)에 관한 연구-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6(2), 1-20.
- 구필모·허향진·서용건·이성은(2007). 호텔기업의 내부마케팅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특급호텔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9(2), 167-184.
- 김범국·고재건·김형길(1989), 제주도 관광도산품 개발과 농어가 소극증대와의 연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3, 41-70.
- 김사현(1997). 관광학연구에 나타난 논문주제 분석과 향후 학회지의 발전방향, 『관광학 연구』, 21(1), 4-8.
- 김인신·조민호(2011). 제주올레 관광지 속성, 도보관광객 편익, 그리고 지각된 가치 간 관계 분석-수단-목적 사슬 이론 적용, 『관광연구논총』, 23(2), 127-154.
- 김진동·허중욱(2011).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한 지역관광의 현안과 과제 분석: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3(8), 493-512.
- 김진원·윤병국(2013) 관광분야 GIS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연구동향, 『관광학연구』, 37(10), 137-162.
- 김형철·송두석(2015). 호텔관광연구 게재논문 성향분석, 『호텔관광연구』, 17(5), 381-395.
- 대니얼 라이프·스티븐레이시·프레드릭 피코(2001). 『미디어 내용분석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승영 · 정승훈 · 양성수(2010), 크루즈 관광의 기항지 관광활동에 관한 연구-제주지역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경영연구』, 44, 183-203.
- 박시사 · 전형진 · 정철(2010). 외래관광객의 관광불편신고 내용분석, 『관광연구』, 24(6), 353-374.
- 박재모 · 여정태(2003). 제주도 방문관광객 수를 이용한 수명주기 추정과 발달단계 분석, 『관광학연구』, 27(3), 115-131.
- 박효연 · 이해련 · 김대관 · 송수엽(2014)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메가이벤트 신문사설 분석-2012 여수엑스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8(1), 179-199.
- 배준호 · 신흥철(2008). 여행지선택 의사결정단계에 따른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제주도 여행지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29, 254-269.
- 변수녀 · 최병길(2007). 관광의 동기, 만족 및 관광지 충성도 간의 관계 구조모델, 『관광레저연구』, 19(3), 29-43.
- 부소영(2003). 축제의 지역이미지에 대한 영향관련 내용분석. 『관광학연구』, 27(2), 113-132.
- 상려아(2007). 한·중 여가연구 비교. 『관광연구논총』, 19(2), 93-107.
- 서용건 · 고평희(2006). 관광객의 쇼핑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0(6), 177-198.
- 서원석 · 이보배(2012) 한국 카지노산업의 변천 및 카지노 인식에 대한 변화 내용분석, 『관광학연구』, 36(3), 103-128.
- 서원석 · 백주아(2007). 관광이미지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18(2), 299-309.
- 서정호 · 김철원(2012) 국내관광 의사결정과 소셜미디어의 관계성 규명, 『관광학연구』, 36(10), 125-148.
- 송재호 · 김향자(2010). 관광목적지 마케팅 연구경향 분석연구-2000년-2009년 관광 관련 국내 주요 학회지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4), 143-166.
- 신진옥 · 정철(2014). 제주 올레에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은 국내관광객과 어떻게 다른가?, 『관광연구논총』, 26(4), 113-134.
- 안중윤(1995), 한국에 있어서 관광연구의 현황과 과제, 『관광학연구』, 18(2), 221-238.
- 양성수 · 박시사 · 조성진(2009). 녹차인식, 지각된 가치와 관광만족간의 관계, 『관광학연구』, 33(1), 95-112.
- 양성수 · 정철 · 육운 · 조문수(2009). 한국음식의 질에 따른 제주방문 중국관광객의 시장 세분화, 『관광학연구』, 33(5), 387-408.
- 양승필 · 서용건(2015). 관광개발에 대한 갈등요인, 갈등수준, 주민협력 및 개발 지지도간 영향 연구-제주지역 카지노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30(2), 309-329.
- 양창식(2004). 제주도의 장수지역 이미지 관광자원화 방안, 『관광학연구』, 28(1), 63-82.
- 오상훈 · 고미영 · 강성일 · 양필수(2008). 제주방문 한중일 관광객의 쇼핑행동 비교연구-쇼핑

- 동기, 쇼핑가치, 쇼핑만족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3(3), 139-156.
- 오상훈·양필수(2008).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제주지역 관광위기 유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3(2), 363-381.
- 오상훈·양필수·김정희(2008). 추구편익에 따른 골프관광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3), 319-338.
- 오상훈·고미영(2009). 한국의 여가연구 동향에 관한 내용분석:관광학 분야 학술지 게재논문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1(1), 3-20.
- 오익근(2000). 내용분석의 관광분야 활용. 『관광학연구』, 24(1), 317-322.
- 윤병국(2012). 2000년 이후 국내 관광지리의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관광연구저널』, 26(1), 131-148).
- 이군희(2007),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법문사.
- 이민재·황윤섭·서원석(2014). 관광객의 기후변화인식에 따른 관광위험, 관광만족 및 행동의도 차이검증을 통한 제주관광경쟁력 제고방안, 『관광연구논총』, 27(4), 179-198.
- 이소윤·홍성화(2008). 컨벤션산업 이해집단간 협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0(4) 297-314.
- 이영진·송영민·윤지환(2011).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 관광 분야 적응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연구저널』, 25(4), 313-328.
- 이완형(1989). 관광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주민인지-제주도, Hawaii, North Wales 및 Istanbul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13, 137-156.
- 이진형·심재명(2009). 우리나라 관광학술지의 여가연구경향에 대한 내용분석. 『관광학연구』, 33(2), 9-30.
- 임은미(2004). 리조트 관련 연구동향, 『관광연구논총』, 16, 285-302.
- 임주환(1989). 제주도 관광개발의 여건과 개발방향, 『관광연구논총』, 1, 155-170.
- 임하정·홍성화(2007). Trade Show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연구저널』, 21(4), 117-129.
- 임하정·홍성화(2008).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엑스포참가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3), 145-165.
- 장성수(1987). 제주관광연구의 동향 및 전망, 『제주도연구』, 4.
- 장성수·김종기(2012). 제주지역 관광 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0, 351-381.
- 장혜원(2012). 다크투어리즘의 스토리텔링 요소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7(1), 251-273.
- 장혜원·김태훈·정철(2011). 다크투어리즘 참가자의 방문동기, 『관광학연구』, 35(6), 79-97.
- 장혜원·최병길·송재호(2012). 다크투어리즘 참가자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제주 4.3평화공

- 원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6(9), 157-176.
- 제주특별자치도(2014). 「2013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조광익·김남조(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31-51.
- 지봉구(2009). 관광정보 영향요인, 관광정보 만족도, 관광만족 간의 관계 분석, 『관광연구저널』, 23(4), 277-291.
- 차진아(2012). 국내 4년제 대학 조리학과 교과과정 내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관광학연구』, 36(3), 319-340.
- 최규환(2003). 관광학술지 연구논문에 관한 내용분석, 『관광·레저연구』 학술지를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15(1), 11-29.
- 최기탁(2012). 최근 관광 웹사이트의 연구동향과 경영전략적 시사점, 『관광학연구』, 36(9), 287-310.
- 최병길·김경호(2007). 제주관광에서 재방문객의 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1(3), 269-288.
- 한범수·김사현(2001). 관광학 연구논문의 조사설계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관광학회 간행 관광학연구 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5(2), 13-33.
- 한학진·이흥규(2014). 수단목적 사슬이론(MEC)의 소프트 & 하드래더링 기법에 따른 제주올레 관광객의 가치 비교연구, 『호텔관광연구』, 53, 98-121.
- 허진·고미영(2012). 관광분야 중국인관광객 관련 연구동향 내용분석: KCI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 논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4), 81-100.
- 허향진·박시사·양성수(2006). 인터넷 여행사의 e-loyalty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방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8(4), 135-151.
- 홍성화·최병길·이성은(2006). 국내 관광분야 축제 이벤트 연구논문 내용분석: 1995-2004년 연구경향과 분석방법 검토. 『관광학연구』, 30(6), 95-111.

2016년 10월 9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6년 11월 13일 1차 심사완료

2017년 2월13일 최종심사완료일 및 게재확정일 통보

2017년 2월 24일 최종 논문 도착

3인 익명 심사 畢

